



화순군 동면 천덕리 광주은행 연수원 부지에 옮겨 세워진 현준호씨 제각 겸 거택 무송원. 잡초 속에 방치돼 있다. /화순=남명기자 mjna@

날아갈 듯한 팔작지붕...광주시민들 추억의 장소

## ‘현준호 제각’ 어디로 갔을까

“현준호씨 제각(祭閣)은 어디로 사라졌을까”

호남 근대 자본가 현준호씨의 제각 겸 주택으로 쓰이던 날아갈 듯한 팔작지붕 한옥을 기억하는 40~50대 광주시민들은 언제부턴가 사라진 이 고택에 궁금증을 품어왔다. 무등산 등산길 초입, 지금의 학동 목욕예약장 자리에 당당히 버티고 서있던 이 고택은 광주시민들의 만남의 장소이자 70년대 학교소풍 단골 집결장소이기도 했다.

‘현준호씨 제각’으로 통하는 이 건물은 호남권 최초의 민족은행인 호남은행 설립자이자 호남 근대자본가인 현준호(1950년 작고)씨의 제각 겸 거택인 무송원(撫松園)이다.

높은 주춧돌 위에 위풍당당한 본채와 문간채·사랑채가 딸린 건물로, 집이름은 현준호씨의 호 무송(撫松)을 딴 것이다. 무송원은 현재

근대자본가 현준호씨 31년 걸려 지은 한옥 15년전 헐릴 위기 화순 옮겨져 잡초속 방치 ‘광주로 옮겨 문화수도 콘텐츠 활용해야’

가 노후에 거거하기 위해 1930년부터 현재 사후 10년뒤인 1960년까지 31년 걸려 지은 전통 한옥으로, 호남지역 근대 건축사 연구의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추억의 무송원은 1997년 화순으로 해체 이전된 후 이렇다할 보존조치 없이 현재 잡초속에 방치되고 있다.

무송원은 1991년까지 현준호씨의 장남인 현영원(2006년 작고·당시 현대상선 회장)씨가 소유·관리해왔으나 현재가 이땅을 모 건설회사에 아파트 부지로 매각하면서 헐릴 위기에 처했다.

사라질 무송원을 일단 살린 건 광주은행이었다. 광주은행은 이 지역 근대 자본가이자 호남은행 설립자인 현준호씨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현영원씨로부터 무송원 건물을 1991년 5월 무상증여 받아 아파트 공사가 시작되자 해체한 후, 97년 3월 화순군 동면 천덕리 광주은행 연수원부지에 이전 복원했다. 해체 복원비만 당시 5억8천만원이 들었다.

무송원은 현재 광주은행 연수원 부지 200여 평에 생활관(안채)·별관(사랑채)·문간채 등 건평 180평 규모의 3개 건물로 복원돼 있다. 하지만 건물만 달랑 있을 뿐 현재의 체취를 느낄 만한 유품은 하나도 없고, 주변 조경시설도 갖춰지지 않은 채 사실상 버려져 있다.

광주은행은 월 20만원의 관리비

를 들어 무인경비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곳에 연수원을 짓게 되면 이 상태로 존속시키기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광주은행 측은 “지난해 현대그룹 비서실을 통해 무송원 관리의사를 물었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었고, 최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측에 제차 무송원 관리의사를 타진했지만 ‘세금이 많이 나온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전했다. 고 현준호씨는 현정은 회장의 친할아버지다.

정대석 광주은행장은 “무송원은 광주시민에게 추억의 장소로도 유명했다”며 “문화수도에 걸맞게 광주로 옮겨 와 게스트하우스 등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건축 전문가인 전남대 천득염 교수(건축학)는 “무송원은 건축학적으로 매우 아름다운 건물인 만큼 광주시가 부지를 마련해 다시 해체 이전복원해야 할 것이다”고 말하고 “가뜩이나 부족한 문화수도의 콘텐츠를 위해서라도 무송원을 전시·교육·생활체험공간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5년전 모나코서 눈물 흘렸던 현대차 엑스포팀 다시 뭉쳤다

여수 세계박람회 TF팀 구성 완료

‘2012 여수세계박람회’를 유치하기 위해 ‘역전의 현대차 응사’가 다시 뭉쳤다.

16일 전남도와 여수시,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현대차는 이달 초 최한영 현대자동차 사장을 비롯 지난 2002년 당시 2010 여수박람회 유치를 담당했던 그룹 고위 간부 4~5명을 선발, 최근 구성된 ‘2012세계박람회 현대·기아차 여수 유치지원 태스크포스(T/F)팀’ 소속으로 공식 발령했다. T/F팀은 대외협력팀과 기획팀, 파리연락 사무소 등 3개 부서로 구성됐다.

〈관련기사 3면〉 글로벌 기업 현대차가 2010 여수박

람회 유치 당시 유치위원장을 맡았던 정몽구 회장의 지시에 따라 2012 박람회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다.

현대차그룹은 2002년 당시 현대차 부사장으로, 중앙유치위원회 사무부총장이었던 최한영 사장에게 ‘여수 유치지원 T/F팀’ 총괄사장을 맡겼다. 또 김용환 기아자동차 부사장은 T/F팀 실장으로 발령됐다. 김 부사장은 2002년 당시 프랑크푸르트 현대지사

장으로서, 파리에서 유럽권 박람회 유치활동을 전담했다. 당시 중앙유치위원회 현대차지원팀장역을 수행했던 안건희 상무(당시 이사)도 이번

T/F팀 사무국장을 맡게 됐다. 정몽구 현대차 회장도 이달 말 현대차 공장이 있거나 투자계획이 있는 체코와 슬로바키아, 터키 등을 방문해 2012 박람회 여수 유치를 지원해 주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현대차 그룹 관계자는 “정몽구 회장이 지난 2002년 여수박람회 유치 실패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해왔었다. 이번에 여수박람회를 위한 T/F를 구성하고 경험있는 인사들을 배치한 것도 정 회장의 여수에 대한 애정이 반영된 것이다”고 말했다.

2002년 당시 중앙유치위원회 사무부총장이었던 김대성(현 세계박람회 여수시 준비위원회 상임집행위원)씨 역시 ‘현대팀’에 고문 또는 자문 역할로 참여했다. /홍행기자 redplane@

社告

### 제16회 光日盃

### 광주·전남 직장 바둑대회

- 일 시: 2007년 5월 6일(일) 오전 10시
  - 장 소: 한국기원 남구지부(광주 국제호텔 건너편 3층)
  - 참가자격: 광주·전남지역 근무 직장인
  - 팀 구성: 단체전=1팀 3명(주장·부장·삼장). 한 직장에서 여러팀 참가 가능
  - 개인전=각 팀에서 1명
  - 참가신청: 5월 4일(금) 오후 5시까지
  - 참가비: 1팀당 3만원(개인전 포함)
  - 시 상: 단체 및 개인별 우승, 준우승, 3위. 입상자에게 상장 및 부상 수여
- 주최: 光州日報社 후원: 광주시바둑협회

우암학원 창학 57년 역사와 전통

광주의 새로운 명문중학교

**남부대학교**

http://www.nambu.ac.kr

▶ 상담전화 (062)970-0114 ▶ T: (062)970-0001-9

세계로 앞서는 대학

**전남과학대학**

http://www.chunnam-c.ac.kr

▶ 상담전화 1588-5051 ▶ T: (061)360-5000

제52회 호남예술제

▶ 미술·작문·논술(예선) 5월1일~5월19일 접수

▶ 현장예선심사대회 5월9일까지 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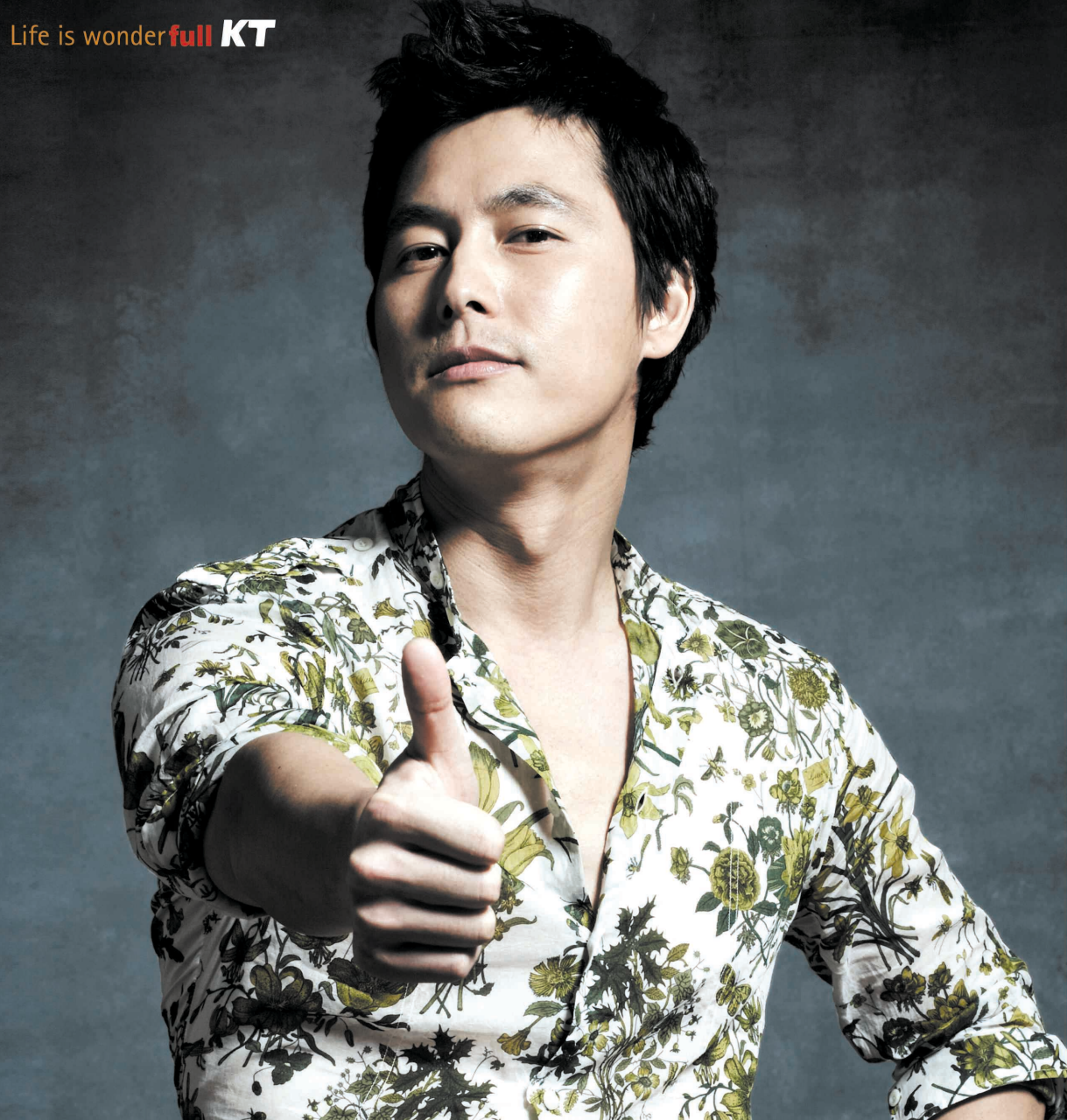
▶ [5월11일, 금호패밀리랜드]

▶ 미술·작문부문 입선제도입

www.kwangju.co.kr (한글)광주일보

(062)222-0541 · 222-8111

광고 퀴즈 신설 ▶ 12면 영화 관람권을 드립니다



## 내 컴퓨터까지 100% 光은 메가패스 FTTH뿐!

모르셨죠? 광랜은 집 앞에서 UTP케이블(구리선)로 바뀐다는 사실 이제 바꾸세요! 내 컴퓨터까지 100% 광인터넷, 메가패스FTTH를 만나세요

내 컴퓨터까지 100% 光

# FTTH

## Megapass

FTTH Fiber To The Home의 약자로 집안의 컴퓨터까지 광케이블로만 연결된 대한민국 유일의 100% 진짜 광인터넷으로 100메가 속도는 기본, 기가급 속도까지 가능해지는 메가패스만의 첨단 초고속인터넷 기술

NCSI 2007년 국가고객만족도(NCSI) 초고속 인터넷 부문 1위 선정

